73명 수행자, 구법의 길 나서다

제46회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
비구 42·비구니 31명 총 73명 수계
진우 스님 "고통받는 이웃 벗 돼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4월 8일부터 9일간의 엄격한 정진과 갈마를 거쳐 구족계를 수지한 73명의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이 4월 16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열린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이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계종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73명의 출가 수행자가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를 온전히 수지하며 인천(人天)의 스승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6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회향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낭독하는 가운데 지난 4월 8일 입재부터 회향까지 9일간의 정진과 갈마 일정을 알리는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 42명과 식차마나니 31명이 구족계를 수지하고 수행자로 거듭났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승가의 후학들을 격려하며 출가 수행자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과 자비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길은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구법의 길이자, 온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전법의 여정"이라며 "인도와 중국을 거쳐 1700년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역사는 치열한 구도행과 더불어 계율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계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스님은 현대 사회에서의 승가 역할을 당부하며 "사바세계는 인드라망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인연 관계를 깊이 살펴 사회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친근한 벗이 되어야 하며, 갈등하는 양측에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수계 제자들에게 '초발심'과 '자비행'을 당부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정오 스님은 "오늘 받은 구족계는 단순한 규범을 넘어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청정한 법맥이자 지혜의 배"라고 수계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구족계를 수지한 73명을 대표하는 수지자에게 수계증 및 도첩이 수여됐으며 사홍서원 후 폐식했다.

이번 제46회 수계산림에는 총 78명이 지원했으며, 4급 승가고시 및 갈마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구 42명, 비구니 31명이 도첩을 받았다.

제81차 조계종 원로회의 4월 22일

원로의원 선출 건 등
도법·영담·정완 대종사

신임 원로의원 선출을 위한 제81차 조계종 원로회의가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4일 14일자 공고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날 원로회의는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과 '기타사항'을 안건으로 다룬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31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취성 도법 대종사(금산사)와 영담 덕운 대종사(쌍계사), 지봉 정완 대종사(용주사)를 신임 원로의원으로 만장일치 추천했다.

원로회의는 원로회의법에 의해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은 승납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 원로 비구다.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김내영 기자

은해사 종회의원 선거에 용주·선지 스님

중선위, 4월 21일 자격심사
5월 7일, 육화원서 보궐선거


용주 스님


선지 스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거동사 주지 용주 스님과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이 출마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에 따르면 4월 16일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용주 스님과 선지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성로 스님의 은해사 주지 선출에 따른 것으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중앙선관위는 4월 21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5월 7일 오후 1시 은해사 육화원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법규위원장 관성·문예원장 송월 스님 임명

중앙종회 제156회 임시회서
주요 인사안 임명동의 의결
2025년도 결산안 원안 통과


태고종 중앙종회는 4월 1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56회 임시회를 열고 인사안과 결산안 등을 논의했다.

태고종 법규위원장에 관성 스님, 불교문예원장에 송월 스님이 임명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는 4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56회 임시회를 열고 종단 주요 인사안 및 2025년도 결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신임 법규위원장에는 관성 스님이 임명됐다. 관성 스님은 2001년 양평 용천사에서 청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총무국장, 총무원 호법위원,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북동부교구종무원장, 보현사 주지를 맡고 있다.

관성 스님은 "만장일치로 임명 동의해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종헌종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불교문예원장에는 송월 스님이 임명 동의를 받아 임명됐다. 송월 스님은 전북교구종무원 포교국장, 교무국장, 총무원 중앙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군산 성흥사 주지, 전북지방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송월 스님은 "종단 불교문예 진흥을 위한 귀중한 직책에 임명 동의해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전통불교문화 계승과 보존,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법위원에는 해운·만허·일주·원오 스님이, 초심부원장에는 법진 스님이, 초심위원에는 철오·진공 스님이 임명 동의를 얻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이날 중앙종회는 2025년도 총무원, 한국불교신문사, 월간불교, 동방불교대학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했다. 결산 결과 총무원은 45억3231만7223원, 한국불교신문사는 1억3959만3725원, 월간불교는 1억7248만8002원, 동방불교대학은 4억4309만9479원으로 집계됐다.

개회식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지난해 우리 종단은 광화문 영산재와 국제보살계 봉행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교세 확장과 전통 계승을 함께 도모해왔다"며 "이러한 모든 노력과 성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중앙종회의원 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혜안을 통해 점검받게 된다는 점에서 총무원 또한 무거운 책임과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을 비롯한 전 종무직원들은 애종심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총무원은 모든 종무행정의 과정에서 종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종단 운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결산은 단순히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출발점"이라며 "이 자리에서 이뤄지는 논의와 결실이 곧 2026년 한 해 종단 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보다 지혜롭고 원만한 종단 운영을 위한 혜안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 장인 1·2급 13명 위촉

문화사업단 제2회 위촉식
"사찰음식 대중화 매진을"



사찰음식 대중화를 이끌 전문가인 '사찰음식 장인'이 위촉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14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2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을 통해 1급 장인 6명, 2급 장인 7명 총 13명의 장인이 새로 위촉했다. 1급 장인에는 지견·혜범·주호·향밀·경운·유화 스님이, 2급 장인에는 진허·선행·성돈·하경·덕원·덕진·우일 스님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사찰음식 장인(1·2급)으로 총 32명이 활동하게 됐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는 오랜 기간 수행과 실천을 통해 사찰음식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오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사찰음식이 우리 사회와 세계 속에서 바르게 이해되고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달라"고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가족과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 구독·법보시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이는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해 선업을 쌓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비록 한 장의 신문이지만 부처님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하는 공덕을 쌓는 포교 실천입니다.
현대불교신문 권선은 나의 이웃과 친지에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뜻 깊은 포교불사입니다.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로 희망의 연등을 밝히는 포교불사에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월구독료 1만원 | 구독 및 법보시 문의 ☎ 02)2004-8214